

“에큐메니칼 운동, 그 어느 곳보다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예장통합 제101회기 에큐메니칼 정책
세미나 장신대 한국일 교수 강연

“한국교회는 깊은 교회역사에 비해 세 계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으나, 선교의 실상은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 선교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지역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선교현장에서 협력선교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어느 곳보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신학이며 원리이다.”

예장통합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위원장 최기학 목사, 이하 위원회)가 17일 낮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1회기 에큐메니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주제 강사는 한국일 교수(장신대 선교학)가 나서서 “에큐메니칼 협력선교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현 한국교회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일 교수는 먼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세계교회들이 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으로 출발해 선교, 봉사, 신학을 중심으로 공동의 증언과 사회적 증언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신앙운동”이라 설명하고, “에큐메니칼 연합과 협력은 개 교회나 교파의 범위를 넘어서야만 하나님 나라를 광범위하게 선포하고 실천하게 된다”면서 “이것을 위해 온 세계에 온 교회가 온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선교와 봉사, 신학의 세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 할 때 세계교회들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증언’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봉사는 복음을 ‘사회적 증언’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되어야 하며 ▶세상에 세워진 다양한 교회의 역사와 예전, 전통의 만남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면서 “현재의 기구 중심의 활동으로부터 모든 지역교회의 호응을 얻고 에큐메니칼 정신을 지역교회 목회와 선교에 구현할 수 있는 교회에 기반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한국교회의 해외·국내 선교

근래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 선교운동에서 시작됐다. 선교현장에서 직면한 경쟁적 선교와 선교사의 교파적 배경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선교사 대표들이 대회를 개최하고 서로 협력해 세계선교의 과제를 함께 수행할 것을 다짐한 것이 그것이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 선교 상황은 100년 전인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를 개최한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거듭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한 교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 세계교회들이 세계적지역적 차원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히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국내적으로 교회의 침체와 저성장의 문제를 비롯해 추락한 사회적 공신력 강화와 세계교회와 책임적 연대, 건전한 선교신학과 정책수립, 다원주의 탄종교와의 관계, 동성애, 이주노동자, 평화통일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신학뿐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교와 관련 한 교수는 “21세기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 별세계 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교회와의 협력선교가 필수적이며, 협력선교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오늘의 선교사 개념은 실제적으로 선교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아직 국내와 해외선교가 구시대적, 제국주의적 형태에 머물고 있으나, 희망적인 것은 국내와 해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시대에 적합한 협력선교를 추구하며 노력하는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라 덧붙였다.

국내 선교에 대해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더 이상 교회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악화된 기구중심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소수의 신학자나 실천 전문가들에 머물러서는 희망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같은 지역교회가 중심인 환경에서 지역교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새로운 목회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정책을 세우고, 공적 책임과 평신도 신학을 지향하며, 지역교회도 참여하는 신학정립과 실천력을 위한 리더십 함양 등이 한국교회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실현하기

한국일 교수는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 특징을 가진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이 주는 유익함, 그것을 한국교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신학이 사회적 차원을 담보하면서도 친교회적이어야 한다 ▶좋은 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구조가 있어야 한다. 세계교회와 연대하는 총회로부터 지역교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직 에큐메니칼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먼저 세계와 연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선교적 목회를 감행하는 선구자적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한 교수는 ▶개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지역교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이 필요하다 ▶사회참여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지역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교회의 선교적 역량을 접두해 실천하는 총회와 연합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교회→총회→노회와 지역교회 순으로 에큐메니칼 구조가 연결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역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활동을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연구하고 설명하며 이론으로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한 교수는 “지역교회 사역을 에큐메니칼 신학으로 정립하는 모델을 지역교회→신학회→총회 정책과 세계교회와 연대하는 이론과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총회 안에 각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평신도들과 목회자, 신학자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에큐메니칼 신학이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차세대 에큐메니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과 디자원적 지원의 필요하다 ▶에큐메니칼 운동과 국제교의 긴밀한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 교회’ 운동이 필요하다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한국일 교수의 주제 강연 외에도 “인도네시아 협력선교 모델 소개”(이규대), “영등포노회의 삼자간 협력선교 모델”(고일호), “평양노회의 협력선교 모델”(최창덕) 등의 사례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 전 여는 감사예배 “초심” 무대에 진행됐다.

행사는 박종호 장로 외에도 고령원과 부흥한국, 메리제인, 송정미, 전용대, 좋은씨앗, 최덕신, 최인혁 등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예배에 대해 주최



“고맙다…사랑한다”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열린 박종호 장로의 감사예배 “초심” 무대에서 그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박종호 장로 페이스북

“한국교회 비윤리성 문제, ‘주기도문’이 대안 될 것”

헤븐리터치 미니스트리 심포지엄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 주제로

헤븐리터치 미니스트리(HTM)가 18일 창립일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 저명한 신학자들을 초청,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명예교수)는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중심이며 핵심”이라 말하고, “주기도문의 각 구절에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정신에서 살아 나갈 때, 예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은밀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를 공동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예수는 신자들이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의 기도하는 법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눅11:1). ‘주기도문’이라는 주님

의 기도는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가 드리는 기도로, 김 박사는 “누가가 기록한 전승된 주기도의 내용을 마태는 7가지 청원기도로 분명하게 기록했다”며 “처음 3 가지와 끝 청가된 1가지 청원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고, 중간에 이어지는 4가지 청원은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했다.

이어 김 박사는 “주기도를 구성하는 두 부분의 상호관계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사이의 관계에 비교 된다”고 말하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 계명을 펼쳐 놓은 것 같아, 주기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라 했다. 더불어 그는 주기도가 “개인적 기도인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기도”라 말하고,

“주기도는 가족이나 사회계층, 남녀노소와 모든 문화와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라며 “주기도는 모든 경계를 뛰어 넘어 우

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든다”고 했다.

최갑종 박사(백석대 총장, 신약학)는 “종교개혁500주년,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교파 난립, 세습, 성주문, 교권싸움, 이단 득세, 세속화 등으로 인해 신임도가 계속 추락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비윤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양면성, 곧 주기도문이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양면성이 ‘이미’와 ‘아직’의 특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것을 제안했다.

특별히 최 박사는 “루터가 이신창의 구원론을 확립하기 위해 성경을 ‘율법’(명령)과 ‘복음’(약속)으로 나누고,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제자도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은 물론, 바울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까지 복음이 아닌 율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고,

“과연 청나라 복음으로부터 윤리를 배제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을 가르침인가?”를 물었다.

최 박사는 “주기도문은 결코 신앙(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은식 기자

간암 수술 후 다시 무대에…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성악가로 찬양사역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던 박종호 장로. 그가 간암으로 쓰러져 투병해 오다 수술 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 최근 여의도침례교회(본당)에서는 박종호 장로의 감사예배 “초심” 무대에 진행됐다.

행사는 박종호 장로 외에도 고령원과 부흥한국, 메리제인, 송정미, 전용대, 좋은씨앗, 최덕신, 최인혁 등 찬양사역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예배에 대해 주최

측은 “박종호 장로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기도해 주고 물질로 후원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삶을 드리는 결단과 파송의 예배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종호 장로는 “어느새 30년이라는 꿈 같은 시작이 오늘까지 있게 하셨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그저 노래했는데, 그 노래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셔서 배우신 은혜로 만나게 해준 성도님들… 저의 모자

이야기 했다.

한편 박종호 장로는 선화예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원을 나왔다. 또 1980년 전국 학생 음악 경연 대회 성악부 대상, 1980년 MBC 우리들의 노래 학생음악 콩쿠르 특상을 수상했으며, 박종호 미니스트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사랑받아온 가운데 한동대 객원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나래 기자

“다음 세대 사역, 130년 전 선교지 ‘조선’과 비슷하다”

좋은교사운동의 ‘2017 학교복음사역 컨퍼런스’

18일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임종화)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학교복음사역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7 학교복음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넥타선교회 도기민 전도사는 발표를 통해 먼저 “교회의 다음세대 사역이 위기”라는 말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에 대해 충격을 받거나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집정적으로 한국은 미래의 미전도 종족, 그리고 이미 한국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도기민 전도사는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미전도 종족으로 봐야 하는 다음세대들 안에서 기독교 혹은 교회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 지적하고, “다음 세대 안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학교에 있는 기독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커밍 아웃’이 되는 지경”이라 했다.

그러나 도 전도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것은 바로 ‘조선’”이라 했다. 그는 “130여 년 전의 조선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다른 세대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18일 좋은교사운동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에서 ‘2017 학교복음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홍은혜 기자

역 한다”면서 “지역교회가 지역에 속한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넥타의 사역”이라 했다.

이를 위해 넥타는 교회가 학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만나도록 도전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링크전문회’,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청소년 목회연구’, 신학대 학부와 신대원에 넥타 동아리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기독교사를 지원하는 ‘사역자 지원’ 등의 일을 한다.

도 전도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 친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포했던 선교사들의 수고가 이 땅에 수많은 복음

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이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려는 교회들이 있다”고 했다. 덧붙여 “우리에게 더 나은 상황은 바로 기독교사가 있다는 것”이라 말하고, “쉽지 않고 벼거운 일이지만, 동역하여 함께 간다면 더 힘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독교사는 학교의 선교사”라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도 전도사의 발표 외에도 “기억하고 상상하라 학교복음화”(김만호) “교사가 살아야 학교가 산다”(이남선) “생명을 살리는 기쁨!”(박종식)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또 자기소개 및 관심 사역 나눔의 시간과 학교복음사역 관련 협력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기도 했다.

홍은혜 기자

2016학년도 침례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열려

침례신학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형원)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최근 교단기념 대강당에서 졸업생 및 교단 관계자, 가족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양병모 박사의 사회로 총회 재무부장 차성희 목사의 기도, 학생실천처장 노은석 박사의 성경봉독이 있은 뒤,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너희는 가라”(마 28:18~20)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관재 총회장은 “졸업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말씀은 33년전 내가 목동 캠퍼스에서 졸업할 당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 당시 GO! YE!(너는 가라!)의 말씀을 회상하며 기념 뱃지를 졸업생에게 제공하겠다. 앞



침신대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침신대

으로 걸손하게 복음을 도전하며 여러분의 길을 가는 졸업생이 되길 기원한다”고 졸업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이형원 총장직무대행의 학위수여, 목회연구원 수료증 수여, 이명희 평생교육원장의 평생교육원 수료증 수여가 진행되었으며, 최우

수상을 수여하는 기독교교육학과 윤충만 학생 등 성적우수자와 총회장 등 교단 기관장상, 대전시장상 등 우수 졸업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형원 총장직무대행은 권면사를 통해 “3년, 4년, 7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학문적 발

전을 이루고 영적깨달음과 인격적 성숙을 통해 한걸음 더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당부하기는 여러분의 박식함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기쁨을 주거나 주위 사람들의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기 바라고, 여러분의 학구욕이 주위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에 무관심하게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희 전 총장의 축사와 총동창회 서광선 사무총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교가제창 및 유관재 총회장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다. 학위수여식 이후 단상에서는 교수와 졸업생들이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하며 그 동안의 사제지간의 정과 석별의 아쉬움을 함께 나누었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6학년도 침례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은 학사 304명, 석사 177명, 박사과정 10명 등 총 49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목회연구원 10명, 평생교육원 5명 등 총 15명이 수료했다. 조은식 기자

한신대 학위수여식 개최,

박사 15명 등 총 1,328명

한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최성일)가 2월 17일 오산캠퍼스 살롱체플에서 졸업생과 학부모, 최성일 총장직무대행,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권오윤 총회장 등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학부 76회, 대학원 61회 등이며, 학사 1,139명을 비롯해 석사 103명, 박사 14명 등 총 1,256명이 각각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 시상에는 김언석 교목실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축하영상메세지, 총장발언, 대표 학위증수여수, 시상, 초청강연, 죽어, 졸업생명예선언, 졸업생 감사인사, 죽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정의로운 한신의 졸업생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졸업생들을 위해 강연을 펼쳤다.

최성일 총장직무대행은 졸업생들의 졸업과 학부모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신인으로서의 ‘만남’ 그리고 ‘인연’을 강조했다.

최 총장은 “여러분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동기, 선배, 교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평생을 따라다니는 인연을 만들었다”며 “그 인연을 바탕으로 더불어 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천진히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특강을 통해, 중학교 교사 자리를 내놓고 미국유학을 떠났던 일, 대학교수의 위치에 오른 후 국회

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 등을 소개하며 “하고 싶은 일의 울림에 따르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처음 밝힌 2014년을 회고하는 한편 최근의 국정조사활동을 전하며 “여러분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

학위수여식 시상에는 김언신학·정명재(철학) 씨 등 9명이 총장상을, 정은주(기독교교육학)·이하연(국어국문학) 씨 등 9명이 이사장을 받았다. 또한 졸업생 41명이 각각 총회장상, 설립자상, 총동문회장상, 대학원장상, 대학장상을 받았다. 이외 졸업생 6명이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오산시장상, 국회의원상(안민석), 오산시의회의장상, 국민은행장상 등 외부기관 포상을 받았다.

졸업생을 대표해 이용민 씨(일본학과)는 “졸업생명예선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으며, 아망과 포부로써 설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구현 속에서, 지금껏 한신 안에서 써 온 한신의 역사를 한신 밖에서 써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신학대학원·사회혁신경영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신학석사 66명, 신학박사 1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위탁교육 수료자 5명,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문학석사 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조은식 기자



한신대 제공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성경난제해설] 야고보서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걸까?

오직 믿음인가?
아니면 행위 구원
인가?(약 2장 14-
26)



1. 마르틴 루터
의 입장

조덕영 박사(창조신
로마서 1장 17
학연구소 소장)

절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이르는 칭의 개념을 이해한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루터는 야고보서를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2. 유대 랍비의 입장

유대 랍비들은 신앙과 행위, 신앙과 순종, 유통법과 행위, 순종과 공로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통일체였습니다. 따라서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칭의)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

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행위 문제에 있어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3. 사도 바울의 입장과 야고보서의 입장

1) 사도 바울의 입장

사도 바울은 유대출신 신자들을 유대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롬 1: 17; 롬 4: 2-3). 유대 출신신자들에게 행위는 유대 유통법(특별히 할례 의식)을 지키는 것에므로 행위와 믿음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인간은 자랑할 것 이 있습니다(롬 4:2).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롬 4:2).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빛진 자로 만드는 일입니다(롬 4:4). 괴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리

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으며(롬 1:5)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2) 사도 야고보의 입장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나 이것이 야고보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약 2:21) 당연히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약 2:14) 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형제자매의 궁핍을 보고 반응하는 믿음입니다(약 2:15-17). 즉 <신앙 없는 행위(행위 구원)>가 아니라 <신앙 있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즉 야고보는 신앙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성도라면 구원 받은 자답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일시적 회심이나 죽은 믿음이 아님을 보이이라는 거지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우리 성경에 <믿음>)이라고 했으나 실은 <아는 것>이라고 보는 것

이 의미에 더 맞음은 귀신들조차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약 2:19). 귀신들조차 알고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은 참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귀신들조차 잘 아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 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 믿듯 예수 믿는 한국인들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 동생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3) 두 사도 사이의 진정한 입장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도 바울의 입장과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일시적 회심이나 죽은 믿음의 행함이 따라온다고 본 야고보, 이를 사도 두 사람이 이해한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 사실 본질적 차이나 모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로목사 제도는
교회에 유익한 제도가?

아님

우리 목사에게 유익한 제도까?

후자 아닐까?

그럼

안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좋지 않을까?

7. 노회에서 나를 공로목사로 추대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솔직히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나

난 그 자리에 안 갈까.

아니 못간다.

8. 낸 원로목사도 싫고

공로목사도 싫고

그냥 난

미스터 김이 좋다.

내가

무슨.....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성 전환자라도 성별 정정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훈란의 소지가 크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생물학적 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정(性徵)과 성 주체성이 달라서 다른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 호르몬 요법을 행해야 하고,

외부적 수술까지 받지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바뀐 성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이번의 경우처럼, 외부 성기에 대한 성형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성별정정’을 해 주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테면, 본래의 남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은 ‘여성’의 성을 가졌다고 하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당함을 겪겠는데 있어,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2004다42)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지침’에서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함께 있어, ‘성염색체, 성선(性腺),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 전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성의 외부 성기 성형수술까지 받지 않았다면,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또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성별 정정을 해 준 것은, 여러 가지로

김동호 “옥 목사 계셨으면 국내 3위 그 교회…”

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故 옥한흠 목사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어느새 한국교회 문화로 자리잡게 된 원로·공로목사 제도에 대한 쓴소리를 던졌다.

김동호 목사는 과거 옥한흠 목사가 강사로 초청한 강연에서 주제로 잡힌 ‘청년 목회’ 대신 절반 가량은 ‘원로목사 하지 말자’는 주제로 강의했다고 한다. 이후 식사를 하며 김 목사와 옥 목사는 대화를 나눴고, ‘옥 목사님 계셨으면 지금 그 국내 3위 교회(사랑의교회)를 치령 - 편집자 주)…괜히 마음만 더 아프셨겠지’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원로목사 제도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도 노회에서 공로목사로 추대한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 안 갈끼다. 아니 못간다”라며 사양했다. 다음은 김 목사의 SNS 글 전문이다. 원로목사, 공로목사 (2017.02.17)

1. 옥한흠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이 나를 강사로 부르셨다.

교단 목사 500여명이 모인 어떤 모임에, ‘청년목회’에 대하여 2시간 강의하라 하셨다.

2. 그때 한 참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대로 교회를 한 번 개혁해 보려고 죽을 힘(?)을 다 쓰고 있는 때였다.

목회자 500명을 보니 욕심이 났다.

‘청년목회’에 대해서 1시간 가량 강의한 후 시기지 않은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원로목사 하지 말자’였다.

3. 강의 끝나고

목사님 피해 도망하여 하였다.

시키지 않은 강의 한 죄가 걸려서...

불잡혔다.

‘침심 먹고 가라’

4. 목사님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다.

‘목사님도 원로목사 하실 겁니까?’

질문은 딴 사람이 했는데 대답은 나에게 하신다.

‘야, 김목사. 김목사 말이 맞는데 말이야. 그런데 거 후임이 와서 죽쓰면 어떻게 하냐?’

도망가려던 사람이 목사님의 질문에 용기있게 대답하였다.

‘원로목사님이 계신다고 죽이 밥 되나요....!!!’

목사님 그냥 웃으셨다.

5. 옥 목사님 계셨으면 지금 그 국내 3위 교회 밥 『을까?』

글쎄? 아이 돈 쟁크 쏘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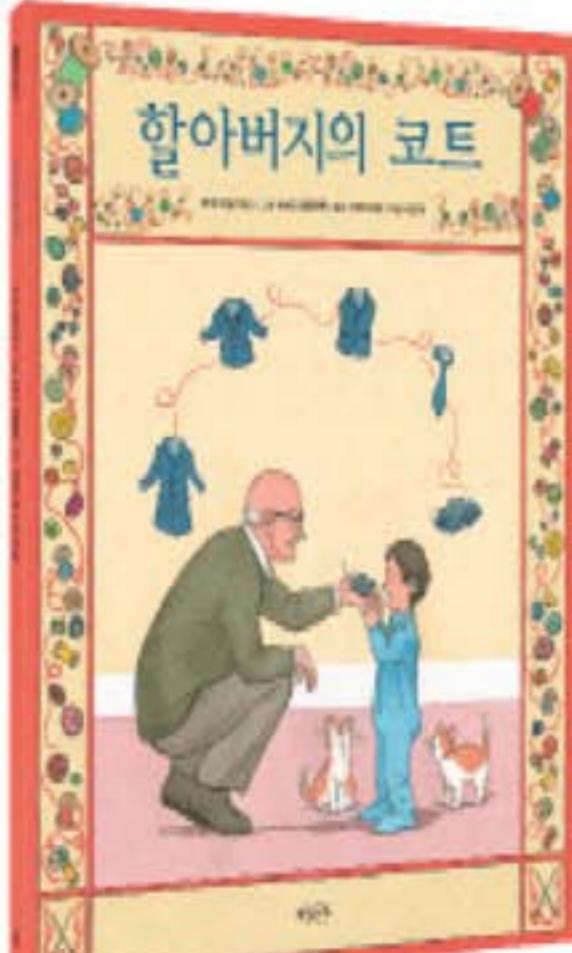
괜히 마음만 더 아프셨겠지.

6. 원로목사 같은 제도 세상에도 있나?

내 생각엔 없는 것 같은데...

영사와 함께 읽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 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뜻 입을 지정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 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물품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트 이효재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분의 02-726-7859

